

1

# 사회적 모성애



[동반의 관점으로 본 사회적 모성애]  
사회적 모성애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던가, 혁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편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럴진대, 혁신에 대한 어쭙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 2. 혁신은 꽃길이 아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에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

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낼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 이지요.

###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밀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사회공헌부장 심은정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였습니다. 사회 불균형, 급속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여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Tri-sector의 만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의제 포럼 진행, ON택트 사회혁신컨퍼런스 개최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협업 논의를 실행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 재해 극복을 위한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다양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매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 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에 참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행 주체들과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여 21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는 21개 지역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과정들을 담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시도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씨앗이 되어 우리 대구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날

사회적 모성 회복을 위한  
이야기 마당

# 우리도 엄마-들처럼

2020 11/16 월 저녁 7시

공간위드 (남구 대영로 65, 세아트위드)

아가포밍 with life with care with heart



하나

### 의제 이해하기

####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8P

실행주체 소개 19P

둘

###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의제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49P

#### 03. 의제 실행

엄마의 날 행사 55P

셋

###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59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61P

하나

사회적

# 의제 이해하기

##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8P

실행주체 소개

19P

모성애



## 01 의제소개



## 엄마들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회적 모성애

#### 사회적 모성애는 왜 필요할까?

안정적으로 양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미혼모로서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2018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는 21,254명 미혼부는 7,768명으로 미혼모와 미혼부는 육아 경험이 부족해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정책과 지역사회관계망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에 아가쏘잉협동조합은 여러 기관·단체와 협약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혼모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맺어 엄마들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정서적·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미혼모와 미혼부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모성애란 미혼모나 미혼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이럴 때 주위의 격려와 보살핌이 있으면 다시 시도할 수 있으나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의 사람도 있다. 그런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사회구성원 모두가 엄마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모성애다.

####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모성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2018년부터 미혼모의 정서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아가쏘잉협동조합과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하여 “새싹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새싹맘 지원사업”은 취업교육 및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가쏘잉협동조합은 미혼모를 넘어 “엄마”라는 큰 범위로 확대하고 “엄마”들의 연대를 통해 아이를 함께 키우자는 “사회적 모성애” 개념을 공문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20년 8월 7일에 진행된 온라인 의제포럼에서는 “사회적 모성애” 사업지원 방향성에 관하여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으며, “엄마”들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 방향과 향후 대구도시공사와의 협업 지점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8월 27일 사회혁신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와 함께 사회적 모성애 의제 실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사회적 모성애 의제 실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었는데, 위드협동조합의 정민철 대표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엄마의 날을 제정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모성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토대로 11월 16일 처음으로 ‘엄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엄마의 날’은 11월 16일 위드협동조합의 ‘위드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미혼모, 10월 항쟁의 유가족, 세 아이의 아빠, 성 소수자의 엄마들이 대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아픔을 공유하였고, 엄마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사회적 모성애를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가쏘잉협동조합에서는 엄마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돌봄 인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이를 위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공간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기업(대구도시공사)과 지방정부의 자원을 연결하여 엄마들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의제 실행 방안

1. 취업지원 교육 및 일거리 연계

- ① 미혼모 대상 취업관련 교육(봉제교육) 운영
- ② 일감연계 : 지역사회 기념품 제작 및 납품→미혼모 소득증대 지원

2.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정서교육, 직업교육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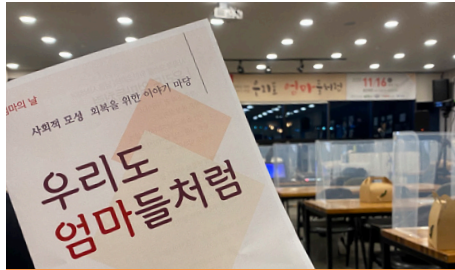
- ① 사회적 관계 맺기 : 심리동반수업, 일반가구-미혼모 가정 교류
- ② 미혼모의 개념 및 현황, 다양한 사례 등 교육을 통한 서로간의 이해 증진
- ③ 사회공헌 프로그램 :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감염예방키트'제작, 전달
- ④ 문화공연 관람 및 가족나들이 지원

3. 정서적 자립을 위한 공간을 제공

4. 컨퍼런스를 통한 의제 실행을 위한 고도화 과정 논의 엄마의 날 추진



10월 14일 3차 협업데이블



11월 6일 엄마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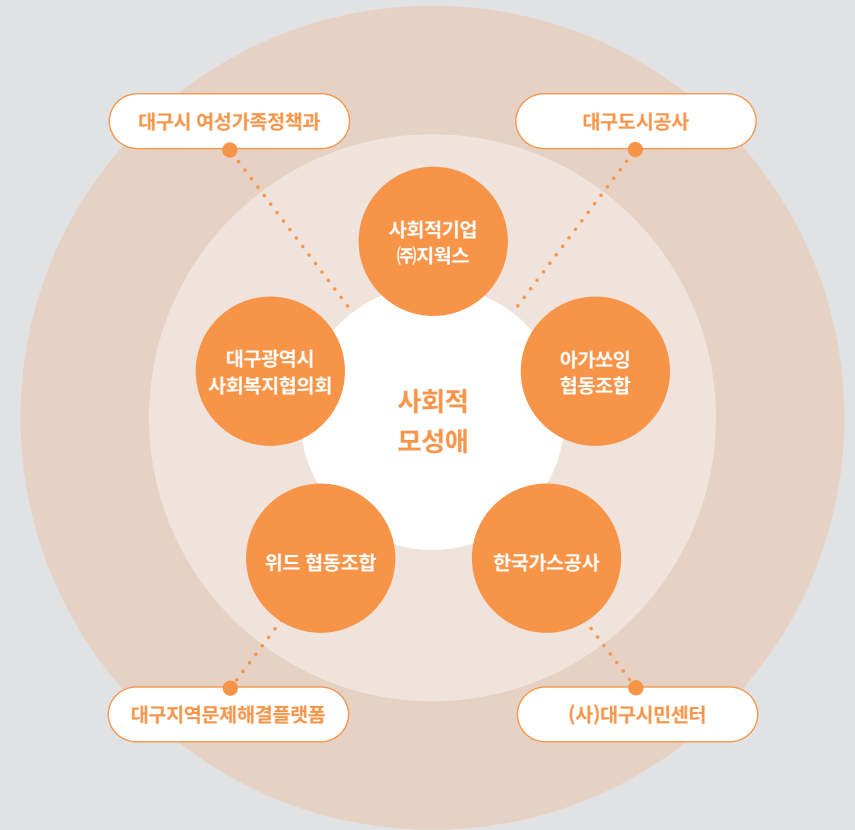


10월 15일 역량강화 워크숍



8월 7일 온라인 공존 의제 포럼

02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연 번	조직(단체)명	역 할	비 고
1	아가쏘잉협동조합	의제 실행 기획 및 운영	
2	한국가스공사	의제실행 자원 지원	103백만원
3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의제 실행 자원 연계	
4	(주)지웍스	의제 실행 자원 연계	
5	위드협동조합	의제 실행 자원 연계	

### 실행 주체 소개

1

#### 아가쓰임협동조합

**설립목적**

미혼모 및 한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지원

**비전**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육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도움

**주요사업**

- 핸드메이드 판매활동
- 키즈쓰임/ 티즈쓰임/ 맘즈쓰임/ 스페셜쓰임
- 스페셜 아카데미
- 미혼모 한부모 가정의 자립지원 : 미혼모 미성봉사
- 두드림 특강

2

#### 한국가스공사

**설립목적**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 및 복리 향상

**비전**

원가인하 6조원, 신수요 700만톤, 일자리 9만개, 청렴도 1등급

**주요사업**

- 도시가스의 제조·공급과 부산물 정제·판매
-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 천연가스의 개발, 수송 및 수출입
-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 수소에너지의 제조·공급
-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및 부대사업

3

####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설립목적**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

**비전**

꿈과 희망이 가득한 복지 대구 만들기

**주요사업**

- 교육훈련사업
- 조사연구사업
- 협의조정사업
- 총보출판사업
- 사회복지정보센터
- 사회공헌정보센터
- 사회복지정보허브사업
- 희망배달마차

4

#### (주)지웍스

**설립목적**

가정경제의 책임을 진 다양한 형태의 여성가장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과 가정공동체의 회복을 돕는다.

**비전**

육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안정적인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공간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형 공동체를 완성하며 일자리 창출

**주요사업**

- 삶의 모든 디자인, 지웍스
- 플라워 베이커리 카페 손수
- 도서출판 조이트리

5

#### 위드협동조합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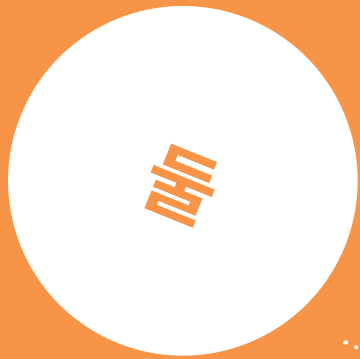
의료영역에서의 평등, 평화 생명가치 실현을 지향하고 의료봉사, 공공의료지원 및 교육 추진

**비전**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주요사업**

-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단
- 위드 캄보디아
- 위드봉사단
- 위드동아리



#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49P

## 03. 의제 실행

엄마의 날 행사 55P



#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 사업추진방식 논의**  
(의제 실행과정 계획 공유,  
의제 포럼 구성 논의)

**1단계**

**1차 협업테이블**  
한국가스공사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7월 3일

7월 30일

**2차 협업테이블**  
아가쏘잉협동조합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 사업추진 세부내용 논의**

**2단계**

7월 28일

**온라인 “공존” 의제 포럼**  
발제: 김경애(아가쏘잉협동조합)  
한가영(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부)  
참여: 위드협동조합,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주)지웍스  
대구시 여성가족과, 엄마 대표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아가쏘잉협동조합, 위드협동조합, (주)지웍스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가스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 여성가족과

8월 27일

**역량강화 워크숍**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주)지웍스  
아가쏘잉협동조합, 위드협동조합, 한국가스공사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0월 15일

10월 14일

**3차 협업테이블**  
아가쏘잉 협동조합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1월 16일

**아가쏘잉협동조합 엄마의 날**  
아가쏘잉협동조합, 위드협동조합, (주)지웍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02 논의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 ON-LINE 공존 의제 포럼



**개요**  
 일시 : 2020년 8월 7일 (금) 14:00~15:3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b>참여자 : 8명</b>	아가씨잉 협동조합	김경애 대표
		신영철 팀장
	당사자	엄마 대표
	위드협동조합	정민철 대표
	(주)지웍스	변수영 대표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주영 대리
	대구도시공사	강경진 과장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	하경식 팀장

발언기록

신영철 팀장  
아가씨잉협동조합

오늘 온라인 의제 포럼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행정구역에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이신 엄마대표로 한 분 나오셨고요, 위드협동조합의 정민철 목사님,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주영 대리님, (주)지웍스의 변수영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참석해주셨는데요,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 가족/다문화팀의 하경식 팀장님 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대구도시공사 강경진 과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모아 사회적 모성애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많은 기대가 됩니다.

김경애 대표  
아가씨잉협동조합

**발제1 사회적 모성애란 무엇인가?**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아가씨잉 협동조합의 김경애 대표입니다. 사회적모성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모성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잉은 8년 동안 미혼모 엄마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8년차에 접어들면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겪었고 또, 수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아가씨잉협동조합의 진행이나 사업을 잘했다는 것 보다는 저희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미혼모를 돕는다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혼모는 돕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동반을 한다.’는 것은 계단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단 아래에서 함께 서서 같은 위치에서 눈을 마주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미혼모에서 미혼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엄마라는 이름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이 두 장이 보이실 텐데요, 한 사진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고 노숙하시던 저희 한 엄마였고요, 다른 한 사진은 엄마와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있는데 태어난 신생아를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자 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합니다.

노숙하던 저희 엄마도 여러 사회기관을 전전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겪으면서 아이와 엄마 한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설도 들어가기 싫었고 원룸조차 구하기 어려워 어딘가에서 이 모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선생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심정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세상을 등지고 싶어 병원에 실려간 후 남겨진 그 아이를 과연 누가 돌봐야 할까요. 생명의 탯줄을 통해서 생명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는 과연 이 사회의 탯줄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겪어내며 결국 우리가 엄마들과 함께 동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모성애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던데,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사회적 모성애란 ‘생명을 담는 품’ 이라고요. 아마 렘브란트의 그림들은 다들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사회적 모성애라고 말을 했을 때 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엄마들 또는 여성들의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모성애란 엄마와 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 두 손을 자세히 들여다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손의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모성애는 부성애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것을 사회적 모성애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실수, 착오를 겪을 때 주변의 사회적 관계에서 용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시 일어서고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리적 공간도 아니고 혈연을 맺어진 공간도 아니고 바로 사회가 만들어내는 공간을 통해 사람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는 사람은 돌보는 사회적 모성애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여러 일을 겪으면서 크게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들은 세상에 소리를 내기 힘들었고 또 저희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들을 하루 세끼 밥을 못 챙겨 먹어도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어 힘든 엄마, 월세를 내지 못해 힘든 엄마 그런 분들에게 현금과 그 외에 기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때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나 콜뱅크를 통해서 엄마들에게 적지만 현금을 함께 나누었고 아이들이 입고 남은 옷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세탁해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입었던 옷을 나눌 수 있는 도나의 옷장과 도나의 식탁 등 우정과 한대의 공간이 마련된다면 실현해보고자 합니다. 도나란 라틴어로 ‘무엇을 주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한국어로 변환하면 도움과 나눔의 축약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나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마음으로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는 관찰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모성애란 지금 당장 저희들의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분필을 하나씩 들고 선을 하나씩 긋고 점을 하나씩 이어서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모두를 감싸줄 수 있는 엄마 품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모성애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철 팀장

#### 아가소잉협동조합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엄마의 그림을 그려놓고 잠든 아이의 사진을 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낮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한가영 주임님께서 사회적 모성애 사업 지원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 한가영 주임

## 한국가스공사

## 발제2 사회적 모성애 사업 지원 방향

먼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더불어 한국가스공사의 미혼모 지원사업인 새싹맘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한국가스공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온누리 펀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조성하는 현금을 모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연말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었던 기존 사업을 지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 실행하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할지는 선호도 조사를 따르는데요, 2017년도 말 임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반영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새싹맘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새싹맘이라 작명하게 된 이유는 꽃이 새싹에서 피어나듯이 미혼모분들을 하나의 씨앗인 새싹으로 보고 꽃처럼 활짝 피어나라는 염원을 담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도 사회적 모성애 의제를 발굴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반을 통한 사회적 모성애’ 의제와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새싹맘 지원사업을 연계할 하여 의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고 대상자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상자들의 정확한 니즈 파악을 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라던가 아가씨영협동조합에서 큰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라 기관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추진 목표는 취업교육 및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혼모분들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립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미혼모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새싹맘 지원사업의 협업기관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일단 저희 사업비인 임직원 온누리 펀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고 그 다음 실제 사업수행에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아가씨영협동조합에서 크나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 교육 및 일거리 연계 부분인데요, 실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미혼모분들이 실제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봉제교육을 운영하면서 미혼모분들이 실제적으로 봉제교육을 받으시고 저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사회의 기념품 제작 및 납품을 하는 일감 연계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사업의 대여 바구니를 제작하는 등 가스공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일정 부분의 소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사회혁신 컨퍼런스의 굿즈 중 에코백이 있는데, 그 에코백 역시 미혼모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심리정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2020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 맺기 프로그램입니다. 미혼모분들과 일반 가정의 엄마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개념과 현황, 사례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혼모분들이 수혜자뿐만이 아닌 나눔을 베푸는 입장에서 저소득가정의 감염예방키트를 제작하고 전달해드립니다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화합을 위한 문화공연 관람 및 가족나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이 부분은 축소하고 방역에 신경을 써 당일치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취업지원 및 일거리 연계를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도와드리고 또한 정서적으로 ‘사회적 관계 맺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 의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업에서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반 의식 그러니까 사회적 모성애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혼모 가구와 일반인 가구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경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혼모든 엄마이든 똑같은 엄마인데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공감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또 미혼모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지역사회에 나눔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사회에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류프로그램에 교류 요소를 조금 더 확대해서 미혼모와 일반 가정의 엄마가 아닌 엄마들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 교육을 통해서 신규 일감과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여 소득 증대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것이지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모두의 인식변화와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일거리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미혼모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에 함께 보완점을 찾아서 개선한다면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철 팀장

#### 아가쏘잉협동조합

두 분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모성애에 대해 김경애 대표님이 발제 내 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아가쏘잉협동조합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가영 주임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며 이제 이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의제의 당사자인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엄마 대표

안녕하세요. 엄마 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엄마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경제적인 부분인데 아이가 아직 어리고 돌보아줄 사람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픽업 가능한 시간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얻는 소득으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전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니고 싶지만,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직장을 구하는 것에 제한이 많습니다. 요즘 시기엔 파트타임으로 구할 수 없을뿐더러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도 넉넉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김경애 대표님으로부터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케어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듣게 되었고 저도 그렇게 공간이 확보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들의 자립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부담감을 홀로 짚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모두가 도와주어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부담감을 덜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영철 팀장

#### 아가쏘잉협동조합

고맙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셨을 텐데 이야기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육아를 홀로 담당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주시면서 사실 육아 문제 말고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사회가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모성애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코로나 전국 대회, 아가쏘잉 협동조합,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 많은 물품도 보내주시고, ‘필리핀 마스크 보내기’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위드협동조합의 정민철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 정민철 대표

#### 위드협동조합

얼마 전 아가쏘잉협동조합 대표님으로부터 아이를 잠시 맡아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아 덜컥 수락하여 하루를 잠시 맡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통보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내는 덜컥 겁을 내더라고요. 남의 집 아이를 혹여 우리가 잘못보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어쩌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은 저질러졌고 아이는 집에 왔는데 결론적으로 하루가 나고 나니 저희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 생각보다 어렵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가족 모두가 가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김경애 대표님과 신영철 팀장님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한 것인데, 저희 가족이 그 짧은 순간 구원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두 딸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모성애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회적 모성애가 어떤 특별한 수혜자가 있고, 저 같은 사회활동가만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성애가 증발되어버린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서울에 홀로 독립을 해야 해 가족이 다 함께 갔다 집으로 오는 길에 막내가 언니가 갔다고 물어 가족 모두가 차 안에서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딸을 독립시키면서 “우리 딸아 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집, 옆집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모성애가 사라진 삭막한 도시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런 사회적 모성애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회적 모성애를 어떻게 하면 보편화시키고, 같이 느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들을 효과적으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철 팀장****아가쏘인협동조합**

너무 고맙습니다. 사회적 모성애가 증발된 사회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가 사회적 모성애가 꼭 필요한 사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가쏘인협동조합과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모성애 협력사업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주영 대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대리****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네,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주영 대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여 2018년부터 시작된 새싹맘 지원사업은 햇수가 거듭될수록 저희 또한 변화하고 발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만큼 사회적 욕구도 다양해지고 시혜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해가는 사회적 가치창출의 시대가 도래된 만큼 올해 사업은 민과 관의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후원처와 협력기관 모두 좋은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협력기관의 미혼모분들은 일자리 창출과 정서 지원이라는 욕구가 분명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일자리 교육과 할로 개척 그리고 정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후원처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가치창출에 대한 목표가 있었기에 그에 맞는 목표와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집단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부터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은 훌륭하나 예산을 비롯한 자원과 대상자와 지리적, 환경적 특성 때문에 현실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며 또, 도움이 필요하나 사회적 가치나 평가 그리고 실적에 의해 필요한 소수의 문제에서는 관심을 돌리는 상황 역시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후원처에는 현장에서의 소리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그들의 욕구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협업기관에는 후원처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여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분들이 밖에서 자신이 미혼모라 밝히지 않는 이상 주위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나 자신이 미혼모라 이야기하면 시선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색안경들이 더욱 미혼모분들을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새싹맘 지원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불쌍한 시각을 가지고 도와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협의회도 그 중심역할을 잘 하기 위해 늘 발전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철 팀장****아가쏘인협동조합**

김주영 대리님께서 말씀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아가쏘인협동조합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아가쏘인협동조합 모두가 같이 노력하여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여성가장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주)지웍스 변수영 대표님 계신가요? 대표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수영 대표****(주)지웍스**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좋은 토론의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지웍스이고 다양한 형태의 여성 가장들에게 안정적·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처음 디자인 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디자인 회사로 시작한 이유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다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경애 대표와 엄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없는데 디자인이란 기술을 가지게 되면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즈를 파악해서 함께 해보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어떻게 하며 엄마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올해 초, 플라워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다양한 여성 가장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 비혼 여성, 일반적인 가정이나 실질적인 가장인 여성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모성애라는 주제를 전달받고 우리에게서 사회적 모성애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회적 모성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탄력적 근무제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출근을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시간에 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 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모성애라는 것은 저는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생긴다면 다양한 형태의 여성 가정들이나 미혼모 등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포용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철 팀장

##### 아가쓰임협동조합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울타리라는 말이 엄마의 품처럼 들려서 참 좋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엄마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뿌듯해집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 가족/다문화팀의 하경식 팀장님의 대구시의 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경식 팀장

#####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 가족/다문화팀장 하경식이라고 합니다, 동반의 관점에서는 보는 사회적 모성애랑이라는 좋은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자립촉진을 목표로 한부모가족의 사업을 부족하나마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한부모가족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1200세대에 29245명의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있으며, 이를 다시 분리해보면 모자가정은 9675세대 22820명정도, 부자가정은 1492세대에 5889명, 조손가정은 140세대에 269명,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137세대에 약 2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부모, 조손, 이혼 부·모자 등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자립역량강화에 약 5억 9500만원, 서구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거사업으로 5천 200만원,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및 부를 위한 사업으로 5천 100만원, 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협의 이혼 신청 부를 위한 상담 지원으로 200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로 155억 4100만원 정도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1억 7800만원,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로 7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 부 교재비로 9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270명에게 세대주 건강검진비로 2700만원 총 약 166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한부모가정에 관한 시설은 총 9개의 소가 있으며 모자 기본시설 5개소, 모자 일시 보호시설 1개소, 미혼모자 기본시설 1개소, 미혼모자 공동시설 2개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구시의 가족/다문화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신영철 팀장

##### 아가쓰임협동조합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대구지역이 엄마들이 행복한 도시, 엄마들이 행복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주 오고 싶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사회적 모성애가 지역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도시공사 강경진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경진 과장

##### 대구도시공사

안녕하세요. 대구도시공사 사회적가치팀의 강경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포럼에 참가하기 전 사회적 모성애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많이 고민을 하였는데,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사회적 가치고, 실적을 평가받는 경영평가회에 사회적 가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적가치팀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혼모라는 분야는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마 전부터 마스크를 지급하고 연극이나 공연, 교육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미혼모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본 적이 없어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 참석을 하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위해 미혼모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제들을 듣고 참고하러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공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서민의 주거안정인데 미혼모들이 자립을 하려면 필요로 하는 것이 의·식·주 부분인데, 도시공사는 주거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철 팀장

##### 아가쓰임협동조합

네. 고맙습니다. 공간을 창출해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는 도시공사가 사회적 모성애라든지,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런 따뜻함이 살아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토론자들이나 발제자들 중에서 서로 질문하거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애 대표

##### 아가쓰임협동조합

8년 동안 미혼 엄마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나면 관계가 맺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만났던 엄마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던 엄마, 시설 바깥으로 나왔던 엄마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 또는 후원의 방향 안에서도 그 외에 사각지대 안의 엄마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엄마들의 소개와 연결로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단절되어버리니 아이들과 함께 엄마가 집안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되어버려서 드러나지 않았던 엄마들이 연결되고 드러나게 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존재한다는 그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속에도 제도적인 지원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지원들 이외에 바깥에 계신 분들을 향한 시선과 관찰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하자면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웁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엄마들과 함께 출근하고, 아이들을 동반해야 하는 엄마들을 사정이나 선택형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며 저희가 미혼모에게서 미혼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의제실행선언식: 대구, ON-LINE으로 접속하다.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b>개요</b>	일시 : 2020년 8월 27일 (목) 15:15~16:0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b>퍼실리테이터</b>	아가쓰임 협동조합	신영철 팀장
<b>참여자 : 8명</b>	아가쓰임협동조합	김경애 대표
	위드협동조합	정민철 대표
	(주)지웍스	변수영 대표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주영 대리
	한국가스공사	한가영 주임
	대구도시공사	강경진 과장
	대구시 여성가족과	이상민 주무관

### 워크시트 내용

김주영 대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적 모성애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실현을 위한 허브(Hub)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허브(Hub) : 미혼모의 정서적·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업 진행과 후원자와의 연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추진. 일반 가구의 엄마들이 미혼모에 대해 교육·훈련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들을 실행 방법들을 고려하며 실행.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원들을 매칭시키고 연결.

변수영 대표  
지웍스

사회적 모성애 의제 실행을 위해  
(주)지웍스 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일자리를 제공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로 인해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 그리고 엄마를 위한 일자리와 지원 준비 중

### 워크시트 내용

한가영 주임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모성애	의제 실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취업교육과 일반연계를 병행하는 “새싹맘 지원사업”을 실행 중.

강경진 과장  
대구도시공사

사회적 모성애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도시공사	에서
시민과 지역사회는 동반의 관점에서 접근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민 주무관  
여성가족과

사회적 모성애	의제 실행을 위해
여성가족과	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관이 운영 하는 프로그램참여 기회를 제공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청에서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으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한부모 가정을 사회적 약자로 판단.
-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인식.

김경애 대표  
아가쏘잉 협동조합

사회적 모성애	의제 실행을 위해
아가쏘잉협동조합	에서
회적 품이 되는 공간마련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실제로 엄마들은 관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 여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사회적 품이 되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좋은 모델링 사례가 될 것.

## 워크시트 내용

정민철 대표  
위드 협동조합

사회적 모성애	의제 실행을 위해
위드협동조합	에서
엄마의 날을 제정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모성애 경험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구성원이 모성애를 경험해보고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 나아가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 안에서 시민 모두가 사회 의제를 공유해보는 기회를 제공.

## 자유토론 내용요약

제안  
정민철 대표  
위드협동조합

-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런 의제들을 페스티벌형식이나 컨퍼런스 형식으로 모두에게 알렸으면 한다.

제안  
변수영 대표  
(주)지웁스

- 기존의 일자리는 탄력적인 근무도 힘들고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다. 기존의 자리들에서는 엄마들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나 호용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 현재의 자리들이 필요를 가지고 해결할 마음이 있으면 다양한 지자체들이나 기관들이 거기에 맞게 지원해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줬으면 한다.



의견  
강경진 과장  
대구도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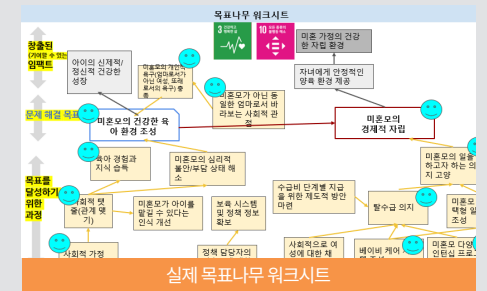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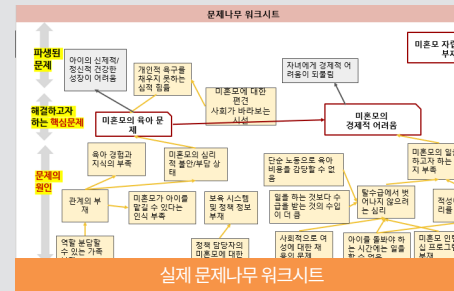
-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부분의 노력 필요하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된 목표를 두고 협업합니다.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 워크숍



<b>개요</b>	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	
	진행 : 대구 중구 태평로160 대구스테이션센터 12층	
<b>참여자 : 6명</b>	아가씨인협동조합	김경애 대표
	한국가스공사	신영철 팀장
<b>기록자</b>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한가영 주임
	위드협동조합	김주영 대리
	대구시 여성가족과	정민철 대표
<b>기록자</b>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혜민 매니저
		이상민 주무관





### 워크시트 내용

#### 문제나무 워크시트

##### 파생된 문제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이 어려움  
자녀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되물림

#####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

미혼모의 육아문제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    미혼모 자립환경의 부재

##### 문제의 원인

미혼모에 대한 편견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움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	육아 경험과 지식부족
미혼모의 심리적 불안/부담 상태	보육 시스템 및 정책 정보 부재
아이를 돌보아야하는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없음	역할 부담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부재

1

#### 목표나무 워크시트

##### 문제 해결 목표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  
미혼 가정의 건강한 자립 환경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

##### 문제 해결 목표

미혼모의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

##### 목표 달성하기 위한 과정

- 미혼모의 개인적 욕구(엄마로서의 아닌 여성, 또래로서의 욕구) 충족
- 정미혼모의 심리적 불안/부담 해소
- 육아 경험과 지식 습득
- 보육 시스템 및 정책 정보 확보
- 미혼모의 일을 하고자하는 의지 고양
- 미혼모 맞춤형/택형 일자리 환경 조성

3

2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사회적 모성애 협업테이블 1차



### 개요

일시 : 2020년 7월 3일(목) 10:00

진행 : 한국가스공사 2층 (동구 첨단로120)

### 참여자 : 5명

한국가스공사

유준호 대리

한가영 주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 19년도 연속 실행의제 추진 상황 공유

- 사회적 모성애
- 수혜자와 직접적인 소통은 피하고,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운영 중
- 사업 현황 : 코로나로 인해 6~7월에 대상모집이었으나, 내부사정에 따라 8월 예정
- 한국가스공사의 의제 취지 : 취업교육, 일자리연계, 심리정서교육

### 안건2.

#### 한국가스공사(사회공헌부) 관심의제 논의

- 215개 Raw Data 중 7개의 관심의제 논의
- 한국가스공사 추진 가능 의제 : 사회적금융지원, 소상공인전자상거래지원, 멘토·멘티
- 그 외 관심의제(4개)는 개인적 의견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사회적 모성애 협업테이블 2차



**개요**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10:00  
진행 : 아가쏘인협동조합 사무실

**참여자 : 5명**

아가쏘인협동조합	김경애 대표
	신영철 팀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안지혜 매니저

##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실행과정 계획 공유
- 의제 On-Line 포럼 : 8/7(금) 14:00~15:30
  - 1차 역량강화 워크숍 : 8/18(화) 10:00~18:00
  - 2020 대구사회혁신 컨퍼런스 「On택트 대구」 : 8/27(목) 14:00~17:00
- 안건2.** 사회적 모성애 의제해결 방향
- “엄마들”의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베이스 공간 필요
  - 긴급 아이돌봄 시스템 마련-공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일력 확보
- 안건3.** 공존 의제 On-Line 포럼참여자 구성 논의
- 민간 활동가 중 토론자 추천
  - 중간조직이나 공공기관 중 토론자 추천• 추진계획 세부 논의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사회적 모성애 협업테이블 3차



**개요**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10:00  
장소 : 아가쏘잉협동조합 사무실

**참여자 : 5명**

아가쏘잉협동조합	김경애 대표
	신영철 팀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유은정 매니저

###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대구사회혁신컨퍼런스(8월27일)에 대한 피드백**
- 컨퍼런스에서 나온 의견 중 “엄마의 날” 추진 논의 중
- 안건2. 2020년 “사회적 모성애”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공간 마련(산격동 도시공사 청년주거 공간)
    - 엄마들 긴급입주가 가능한지 대구도시공사와 논의해야함
  - 공간마련 (LH 임대 공간)
    - 엄마들을 위한 공간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논의중
  - 공간마련이 되면 ‘도나의 식탁’, ‘도나의 옷장’, ‘도나 콜뱅크’ 추진 계획
  - 엄마의 날(행사명 : ‘우리도 엄마들처럼’)
    - 현재 ‘엄마의 날’ 2차 기획 회의까지 진행
    - 일시 : 11월 16일 월요일 저녁 7시 / 장소 : 위드협동조합
    -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 안건3. 역량강화 워크숍(10/15)에서 2020년 “사회적모성애”성과지표 논의**
- ‘쏘잉 아카데미’ 수업 참여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진행예정

# 03 의제실행

## "우리도 엄마들처럼"

### 동반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모성애 : 엄마의 날 행사



1

#### 엄마의 날의 첫 걸음 : 사회혁신 컨퍼런스

지난 8월 27일 사회혁신 컨퍼런스 ‘ON 택트 대구’가 개최되었다. 아가씨협동조합을 비롯해 위드협동조합, (주)지웍스,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가스공사와 대구도시공사 그리고 대구시 여성가족과에서 참석하였다. 이날 정민철 대표의 제안으로 “엄마의 날”이 실행되었다.

해외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기 위해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나 이번 행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모성애를 경험해보고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시간으로 나아가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 안에서 사회 의제를 공유해보는 기회를 제공해보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2

####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엄마의 날’

10월 14일 아가씨협동조합과의 협업 테이블에서 “사회적 모성애”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8월 27일 진행된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대한 피드백 교환이 진행되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인 “엄마의 날” 행사에 관해서도 논의를 나누어 최종적으로 엄마의 날 행사는 16일 저녁 7시 공간 위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오프라인의 4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3

#### 제 1회 엄마의 날 : ‘우리도 엄마들처럼’

그리하여 11월 16일 위드협동조합의 ‘위드공간’에서 열린 엄마의 날이 개최되었다.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노래를 시작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미혼모, 10월 항쟁의 유가족, 성 소수자의 엄마, 세 아이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도 사람도 다르지만, 아이를 대하는 마음은 모두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물학적 엄마만이 엄마가 아닌 누구나 사회적인 엄마가 될 수 있기에 서로의 엄마가 되어 상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

#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

01. 의제 실행 성과

59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61P



사회적



모성애

01 의제 실행 성과

의제간담회 진행

3 회

엄마의 날

행사

협업테이블

3 회

의제포럼 발제

공존

협업테이블 및 의제 감담회 참여

34 명

기관 참여

8 개

##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1

### '엄마'들을 위한 공간 확보

- 엄마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 시급
- 공간을 위해서 LH, 대구도시공사, 지방정부의 자원연계 필요

2

### '엄마의 날'을 지속적인 연례행사 추진

- 미혼모, 미혼부를 넘어 "엄마"라는 이름으로 연대하는 인식개선
- "사회적 모성애"를 위한 공론화
-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추진



3

### '엄마'들의 지역 내 네트워크 확대

- 지역 내 공유공간, 유희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추진
-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자원연계



